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1903년 호놀룰루 항구의 한 주택에서 드린 예배를 미주 한인교회의 시작으로 보면 미주 한인교회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미주 한인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이민자 중심인 1세대 교인에 이어 2, 3세대로 이어지는 세대교체이다.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와 EM사역자 대상으로 교회생활과 신앙 인식, 영어 사역(EM)의 실태와 인식 등을 통해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현장 예배 참석률이나 소그룹 활동 등 교회에 대한 관여도는 한국교회보다 크게 높았으며, 영적 갈급함 또한 높았다. 하지만 한국어 사역(KM)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를 교회가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을 얼마나 수용하는가를 향후 발전의 관건으로 보았다.

세대 차이와 갈등, 교세 감소, 변화 요구 등 미주 한인교회가 처한 상황은 넓게 보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에 대한 모색이 한국교회에도 도전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24 미주 한인교회 교인/EM사역자 조사

### 조사개요

구분	미주 한인교회 교인 조사	EM사역자 조사
조사 대상	미주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미주 한인교회의 EM사역자, EM사역 경험자
조사 지역	LA, 뉴욕/뉴저지, 시카고, 기타(아틀란타 등)	
조사 방법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를 통한 스노우볼링 방식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	
표본 규모	1,169명(유효 표본*) - LA : 740명 - 뉴욕/뉴저지 : 329명 - 시카고 : 44명 - 기타(아틀란타 등) : 56명 (총 67개 교회)	83명(유효 표본) - LA(33명) - 뉴욕/뉴저지(33명) - 기타(17명)
조사 기간	2024년 2월 13일 ~ 3월 12일 (29일간)	2023년 3월 8일 ~ 4월 11일 (35일간)
표본 추출 방법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주체	CTS America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후원) / MICA / AEU 미성대학교	
조사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Fieldwork : ㈜지앤컴리서치)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3년 한국인 종교분포 및 종교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성/연령별 가중치 부여.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과표집)을 방지하기 위해 30표본 이상 응답된 교회의 응답 수를 30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 (가중 적용 사례수 6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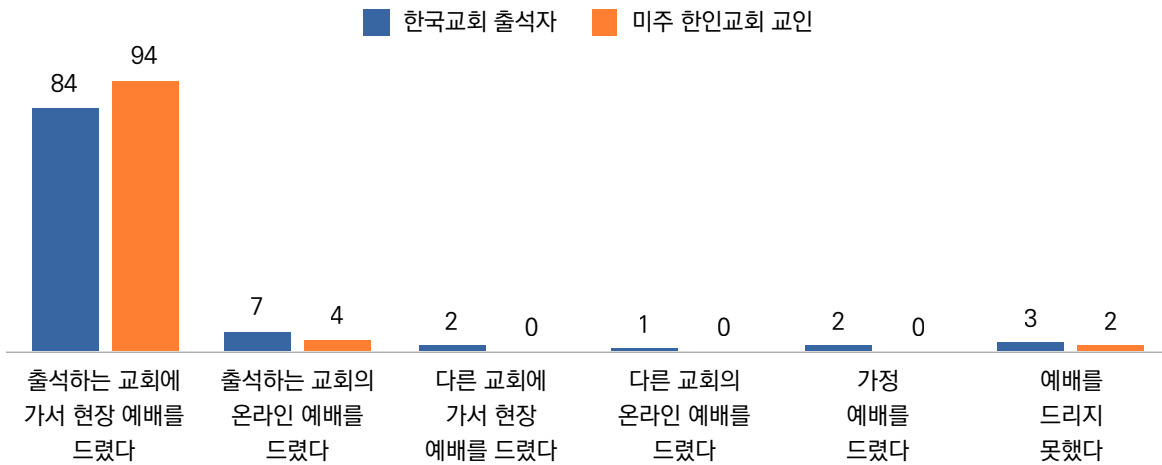
# 01

## [예배와 신앙생활]

### 미주 한인 교인, 현장예배 참석률 한국보다 높아!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주 주일 예배 형태를 묻은 결과, '출석교회 현장 예배'로 드렸다는 응답이 94%로 대다수였고, '온라인 예배'는 4%에 불과했다.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출석 교회 현장 예배 비율은 한국교회 교인(84%)보다 10%p 더 높아 현장 예배를 중요시하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지난주 주일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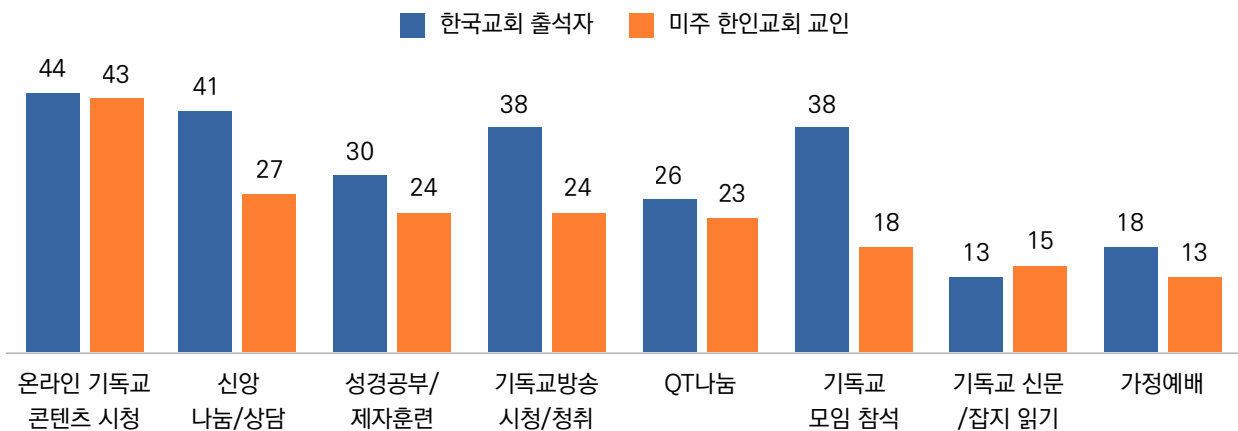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Note) 본 조사는 한인교회 담임목사를 통한 스노우볼링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주로 소그룹 활동자중심(74%)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한국교인과 비교 시 한국데이터를 소그룹 활동자기준으로 비교하였음.

### 미주 한인교회 교인, 한국 교인보다 신앙 활동의 다양성 떨어져!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을 한국 교인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교회 성도 대비 미주 한인교회 신앙 활동이 온라인 기독교 콘텐츠 시청 등 다양한 신앙 활동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신앙나눔/상담', '기독교 방송 시청/청취', '기독교 모임 참석' 활동에서 두 그룹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지난 1주일간 행한 신앙 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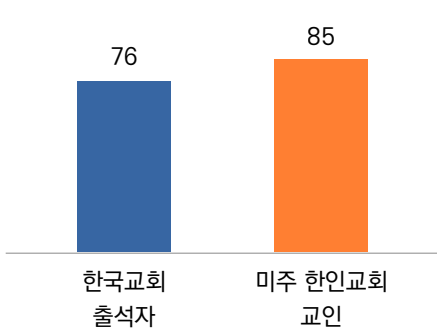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한인교회, 한국교회 같은 보기 항목만을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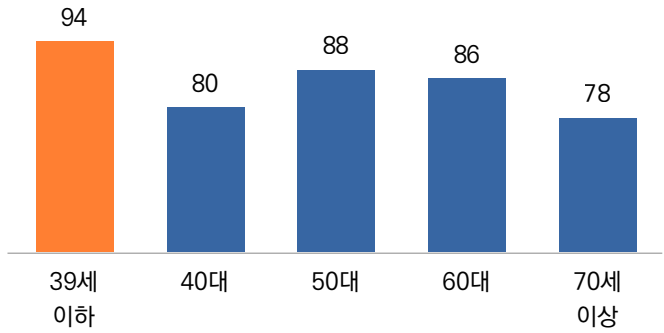
## 하지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 한국보다 더 커!

- 이번에는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대부분(85%)이 현재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교회 출석자의 영적 갈급함(76%)과 비교했을 때,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 타 연령대 대비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크게 느낀다+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그림] 연령별 현재 영적 갈급함 인식 (미주 한인교회 교인, '크게 느낀다+어느 정도 느낀다' 비율\*,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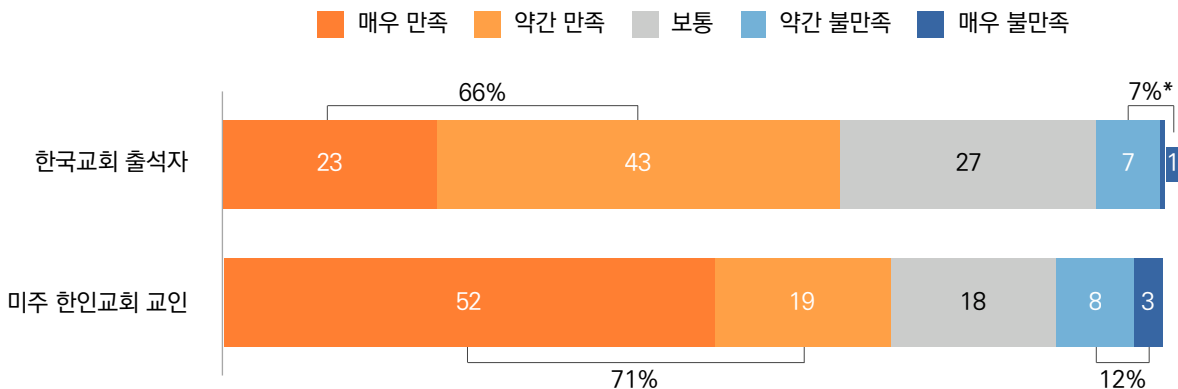
## 02

### [교회 생활과 활동]

## 교회 만족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이 한국보다 다소 높아!

- 미주 한인교회 교인과 한국교회 출석자의 출석교회 만족도를 비교하여 살펴본다. 먼저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경우 10명 중 7명이 현재 출석교회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고, 불만족 비율은 12%로 조사됐다. 반면 한국교회 출석자는 66%가 출석교회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주 한인교회 교인보다는 낮은 비율인 7%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출석교회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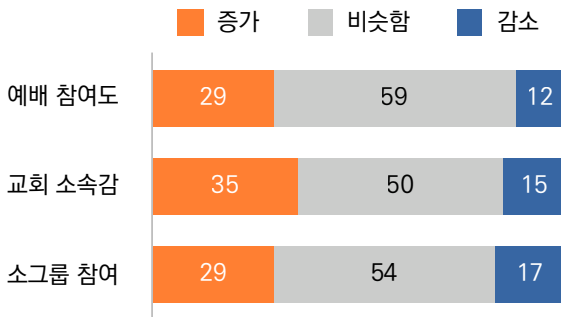
※출처 :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2023.06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출석교인 1,414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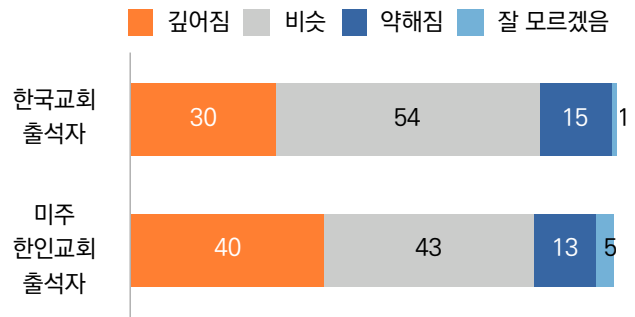
## 교회 충성도와 신앙심, 코로나 이전 대비 상승!

- 코로나 이전 대비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예배 참여도, 교회 소속감, 소그룹 참여 등 전 항목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신앙 수준을 묻은 결과, 한국교회 출석자는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이 깊어짐’ 비율이 30%인 반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은 40%가 깊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오히려 교회에 대한 관여도와 신앙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한국 교인과 비교해보면,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한국 교인들보다 신앙 활동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신앙 깊이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더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생활 변화  
(미주 한인교회 교인, %)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 수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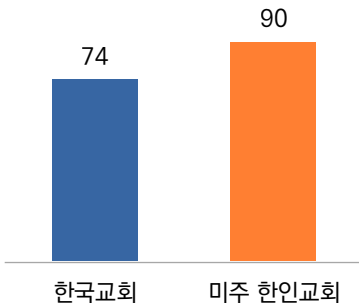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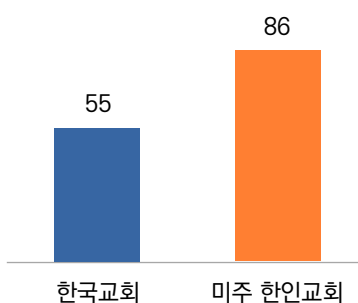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 한국보다 활발해!

- 이번에는 한국교회 교인과 미주 한인교회 교인의 소그룹 활동을 살펴보았다.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묻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는 출석 교인의 대다수(90%)가 소그룹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 한국교회의 소그룹 소속 비율(74%)보다 높았다.
-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역시 ‘미주 한인교회(86%)’가 ‘한국교회(55%)’보다 크게 높아 한국교회보다 훨씬 활발하게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모임 소속 여부  
(교회 출석자, %)



[그림] 출석교회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출석교회 소그룹 참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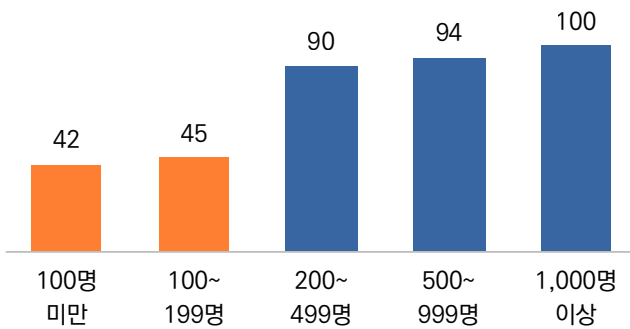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07.(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 03

## [EM사역 실태] 200명 미만 교회, 절반 이하 'EM부서/예배' 부재!

- 한인교회 사역은 크게 KM사역과 EM사역으로 구분되는데 KM은 Korean Ministry(한국어 사역), EM은 English Ministry(영어 사역)의 약자이다. EM은 영어가 익숙한 한인 1.5세와 2세를 위해 미주 내에서 시작된 예배/사역으로 초기 한인교회 사역에는 EM이 거의 없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해당 사역이 등장했다.
- 미주 한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현재 출석교회에 EM 부서나 예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교회 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출석 교인 2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90% 이상 EM 부서/예배가 존재하는 반면 200명 미만은 40%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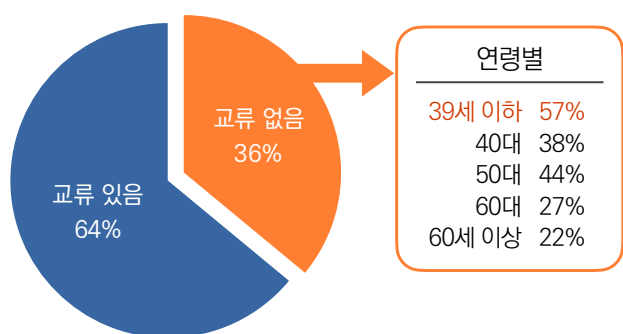
[그림] 교회 규모별 EM 부서/예배 있는 비율 (미주 한인교회 교인, %)



## KM/EM간 교류, 젊은 교인일수록 교류 '없다'는 인식 높아!

- 출석교회에서 EM과 KM 간 교류가 어떠한지를 EM사역 부서가 있는 교회 교인에게 물은 결과, 교회 3곳 중 1곳 이상(36%)이 '교류 없다'고 응답했다.
- EM과 KM의 교류 인식은 세대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39세 이하' 젊은 층에서는 절반 이상(57%)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교회 EM/KM 교류 여부 (EM사역 부서 있는 미주 한인교회 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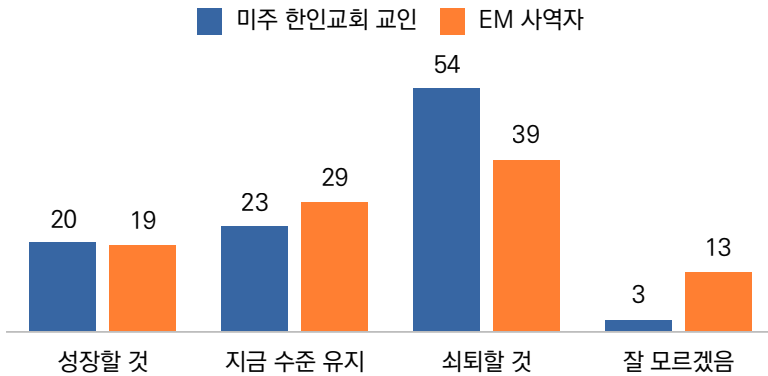
# 04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10년 후 'KM사역 쇠퇴할 것'!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교인과 EM사역자는 어떻게 예상할까? 먼저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예상을 물어본 결과, EM사역자의 39%, 한인교회 교인의 절반 이상인 54%가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했지만,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2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KM이 향후 쇠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림] 10년 후 KM사역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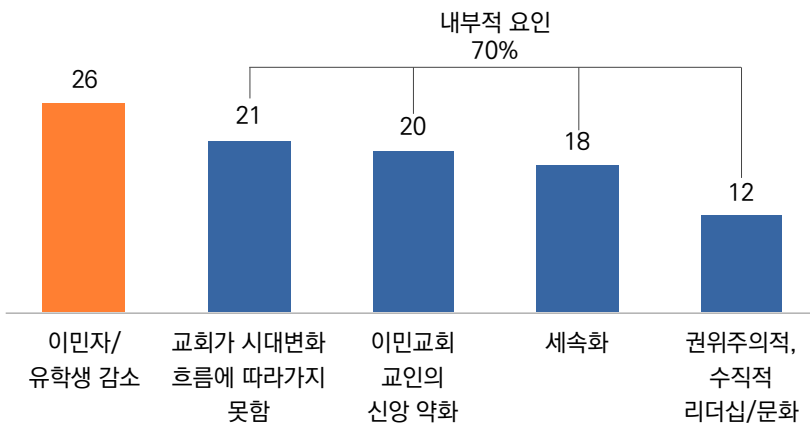


\*한인교회 교인에게는 '귀하는 앞으로 10년 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예상합니까?'로 질문함

##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한 교인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이민자/유학생 감소'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함' 21%, '이민교회 교인의 신앙 약화' 20%, '세속화' 18% 등의 순이었다.
- '이민자/유학생 감소'라는 외부적 요인을 가장 큰 쇠퇴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인의 신앙 수준이 약해지는 등 내부적 요인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KM사역 쇠퇴 예상 이유 (한인교회 쇠퇴 예상 교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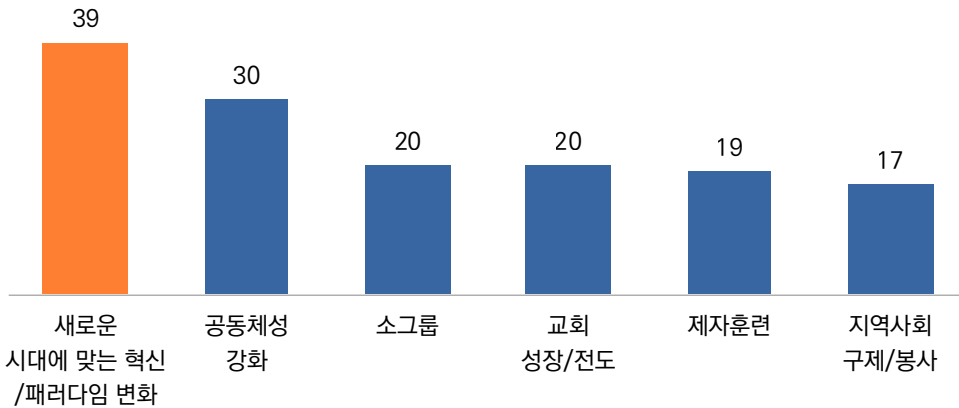




## 한인교회/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 그렇다면 한인교회 교인이 교회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가 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동체성 강화’ 30%, ‘소그룹’ 20%, ‘교회 성장/전도’ 20% 등의 순이었다.
- 앞서 교회 쇠퇴 요인으로 언급한 ‘교회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세속화’, ‘권위주의’ 등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패러다임 변화’의 기대 욕구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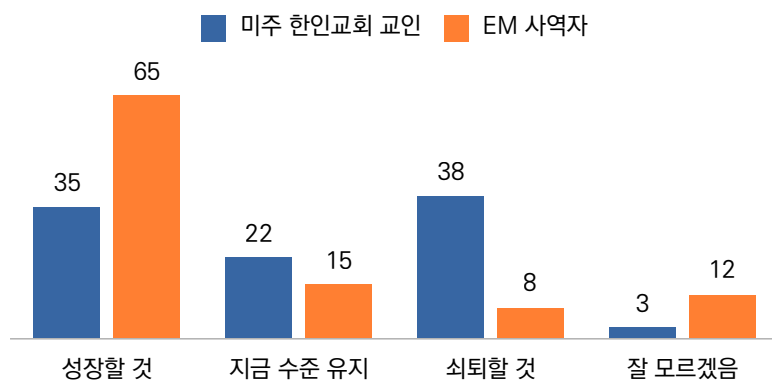
[그림] 교회 및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 (미주 한인교회 교인, 1+2순위, 상위 6위, %)



## 10년 후 EM사역, EM사역자는 성장 기대감 높아

- 이번에는 10년 후 EM사역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EM사역자의 경우 ‘성장할 것 같다’는 긍정적 예측이 3명 중 2명 (6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지금 수준 유지’ 15%, ‘쇠퇴할 것’ 8% 순이었다. 반면 한인교회 교인은 ‘쇠퇴할 것 (38%)’이 ‘성장할 것(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KM사역의 미래 예측과 비교해보면 EM사역이 상대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다.

[그림] 10년 후 EM사역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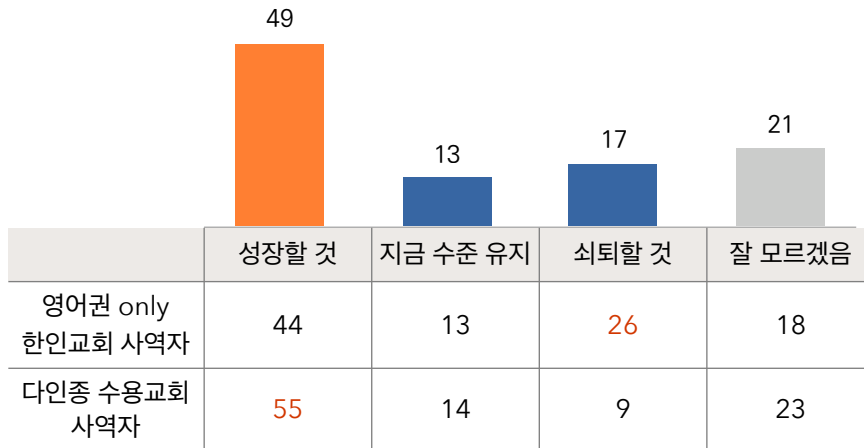




## EM사역자, 한인교회의 미래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 KM과 EM을 포함한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EM사역자에게 물었다. 그 결과, 지금보다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고, '쇠퇴할 것' 17%, '지금 수준 유지' 13%였다. EM사역자는 한인교회의 미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M사역자의 교회 형태별로 응답률을 살펴본 결과, 다인종 수용교회 사역자가 영어권 한인교회 사역자보다 향후 한인교회가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높고 '쇠퇴할 것' 예상은 훨씬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인교회가 다인종(Multi-Ethnic) 교회로 변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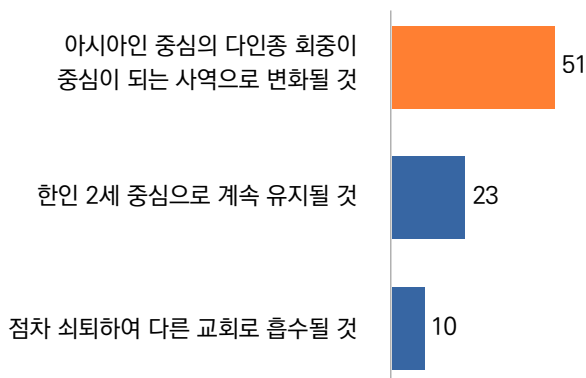
[그림] 한인교회 미래 예측(KM,EM 포함) (EM사역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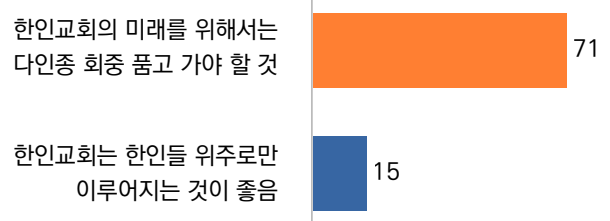
##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Multi-Ethnic) 수용'이 관건!

- 미주 한인교회 내 향후 EM사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은지 EM사역자에게 물은 결과, 절반(51%)이 '아시아인 중심의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되는 사역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외 '한인 2세 중심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란 의견은 23%, '점차 쇠퇴하여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은 10%로 나타났다.
- 이번에는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을 미주 한인교회 교인에게 물었다. 그 결과,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인종 회중을 품고 가야 한다'가 71%로 압도적이었다. 한인교회 성도 역시 EM 사역자와 마찬가지로 한인교회의 미래는 다인종 회중을 품느냐 여부로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보는 셈이다.

[그림] 향후 EM사역 변화 예상\* (EM사역자, %)



[그림] '다인종 회중'에 대한 한인교회의 방향성\* (미주 한인교회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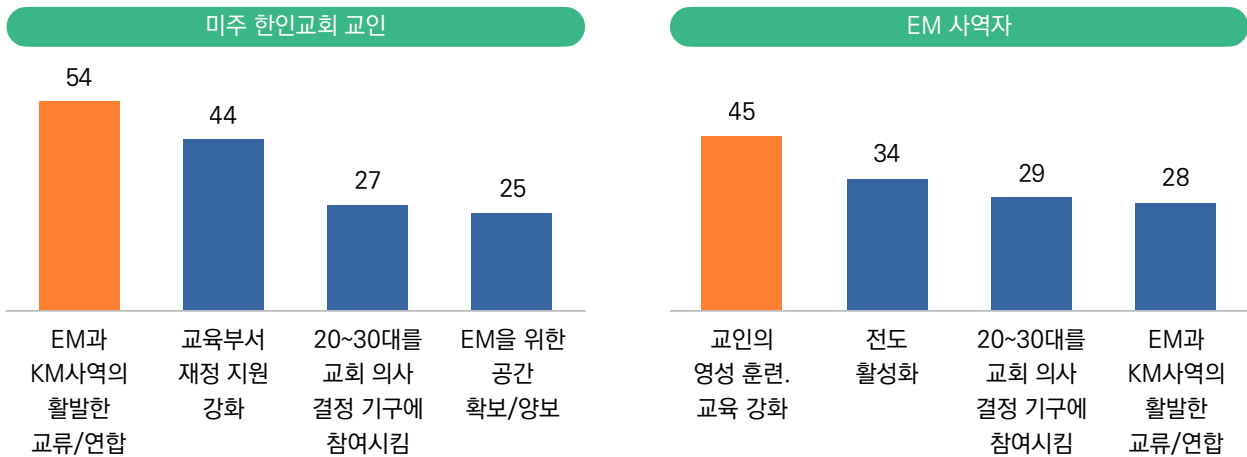


\*'잘 모르겠다' 제외

## 한인 교회 미래를 위한 준비 사항, 'EM과 KM의 활발한 교류/연합'!

- 미주 한인교회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교인은 'EM과 KM사역의 활발한 교류/연합'이 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교육부서 재정 지원 강화(44%)'로 나타났다. 반면 EM사역자의 경우 '교인의 영성 훈련, 교육 강화'가 절반 가까이(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도 활성화(34%)'였다.
- 종합해 보면, 내부적으로는 EM과 KM사역의 교류와 연합이 필요하며, 영성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여 교인의 영적 갈급함을 충족시키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그림] 소속 교회 미래를 위해 필요한 준비 (1+2순위, 상위 4위, %)



## 이번호 요약

### 1. KM사역 쇠퇴 이유,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 훨씬 커!

- 교인과 EM사역자 모두 KM사역의 미래에 대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 KM사역의 쇠퇴 이유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같은 외부적 요인보다는 ‘교회의 시대흐름 뒤쳐짐’, ‘교인의 신앙 약화’, ‘세속화’ 등 내부적 요인이 더 컸다.

### 2. 교회/목회자에게 기대사항,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

- 한인교회 교인들은 교회 쇠퇴 요인으로 ‘교회가 시대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와 연결되어 교인들은 교회에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 3.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 다인종 수용이 관건!

- EM사역자들은 한인교회 내 EM사역에 대해서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높았는데, 그들은 KM과 EM을 포함한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향후 EM사역은 다인종 회중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한인교회의 미래를 위해 다인종 회중을 품어야 한다는 의식이 EM사역자, 교인 모두에게서 높았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2024 미주 목회 인사이트 - 한인교회 들여다보기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 [\[칼럼\] 차세대 사역위한 가이드 미주 한인교회와 다음세대 사역에 관한 고찰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 관련 성경 구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19)

## 미주 한인교회를 위한 목회 적용점

미주 한인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교회가 쇠퇴할 것 같다는 비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민자/유학생 감소 요인이 컸다. 그러나 교인들은 쇠퇴 이유를 내부 요인으로 돌렸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의 세속화, 교인의 신앙 약화를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인식은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비영리든 영리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미주 한인교회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한다.

구체적인 사역 방향으로는 교인 영성훈련과 교육이 시급하다. 한인교회 교인의 영적 갈급함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한인사회 내 비 개신교인이 아마도 70-80%는 족히 될 것이다. 어장이 크고 넓다, 이민자/유학생 없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는 열정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전도 열정이 높을수록 교회의 전도 성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넘버즈 244호)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친교 중심의 현재 소그룹을 전도의 거점 기지로 새로 정립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세기의 역사를 지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응원한다.